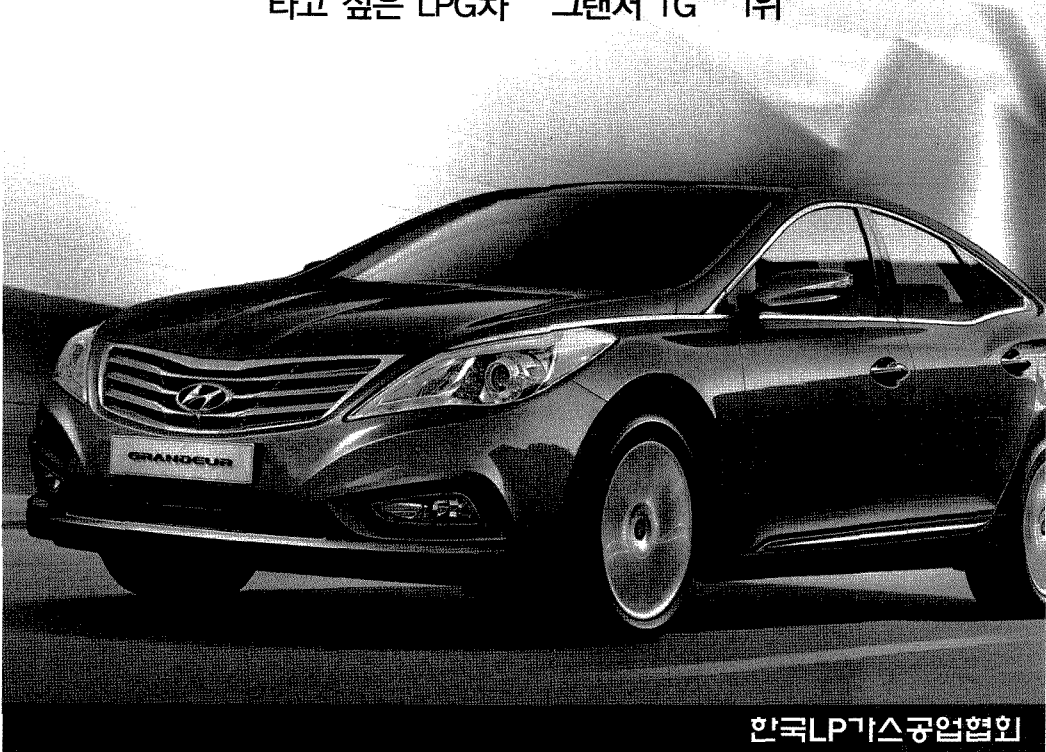


# 11월부터 일반인도 LPG 중고차 구입 가능

타고 싶은 LPG차 “그랜저 TG” 1위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허용됐던 LPG승용차(경차, 하이브리드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차 등 제외)에 대한 중고차 구입이 11월부터 5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서 일반인들에게도 허용된다.

정부는 우리협회를 비롯한 LPG업계와 장애인단체 등 관련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LPG 차량은 현재 중고차 값이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쌀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보다 LPG값이 훨씬 저렴해 유지비가 덜 드는 장점이 있어서 LPG 중고차의 일반인 판매 허용으로 인해 LPG 중고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LPG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로 그동안 휘발유모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던 중고 LPG 차량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LPG 차량은 일반사용 제한에 따라 수요가 적어 중고차 값이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많이 싸게 거래돼왔다. 국내 최대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 홈페이지에는 지난 9월 20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지난 LPG 승용차의 차량이 165만여대 등록돼 있는데, 그 중 주요 모델의 시세는 440만~700만원대로 같은 연식의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250만~500만원 싼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또 NF쏘나타(2006년식) LPG와 가솔린 모델로 각각 서울~부산 구간을 왕복(833km) 운전했을 경우, LPG 차량 연료비는 10만3천여원, 가솔린 차량 연료비는 15만2천여원이라는 업계 조사결과도 있다.

업계는 1999년~2002년 사이 급증했던 LPG차량이 대폐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2~3년 내로 LPG자동차 대수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다행이 이번 조치로 LPG차량의 급격한 감소는 어느 정도 상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PG차량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전문 판매업체 카즈는 2일 최근 자사 사이트 방문자 5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타고 싶은 LPG 모델'로 '그랜저TG'가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오는 11월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타고 판매한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PG 중고차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설문결과 1위에는 그랜저TG가 전체 응답자 중 42%(223명)로 1위에, 뉴SM5가

21%(112명)로 2위에 각각 올랐다.

이어 NF쏘나타와 그랜드카니발이 각각 14%(74명), 12%(64명)로 3위와 4위에 올랐다.

또 5위에는 11%(59명)의 지지를 얻은 뉴모닝이 올랐다. 뉴모닝과 7인승 이상 그랜드카니발은 현재에도 구입 제한이 없어 고유가 대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상황이라고 카즈 측은 설명했다.

뉴모닝 LPG의 연비는 16.3km/L로 1년 2만km 주행 시 연간주유비 132만원 수준이며, 가솔린 보다 30% 정도 주유비를 절감할 수 있다.

1위를 차지한 그랜저TG 역시 연료비가 우수하다. 가솔린 그랜저의 연비는 9.4km/L, LPG 차량은 7.5km/L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가솔린모델의 연간 주유비는 420만원, LPG는 230만원으로 가솔린이 2배 정도 비싸다.

카즈 관계자는 “그랜저TG가 인기 있는 대형차 이지만 가솔린의 경우 연료비가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LPG모델의 경우 대형차의 기름값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PG 차량이 가솔린에 비해 주행성과 연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도심 주행이 대부분인 현대인의 운전 형태를 감안하면 크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휘발유의 절반 수준인 LPG가격 덕에 앞으로 LPG 차량의 인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